

해방 후 광주 사람들 삶은 어땠을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해방 이후 광주 이야기’ 발간

항일독립운동 순국 열사 이야기

극장 문화·도심 역사성 등 조명

지역민들은 오늘의 ‘광주’가 있기까지 광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남도를 넘어 타 지역민들은 또 얼마나 광주에 대해 알고 있을까.

대부분 광주하면 5·18, 그리고 ‘광주정신’을 이야기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지역민들이 선택했던 의로운 정신을 빼놓을 수 없다.

광주가 전남의 도청 소재지가 된 것은 1896년이다. 당시 8개의 도를 13개로 나누면서 나주에서 광주로 소재지가 이전됐다. 그리고 오늘날 143만 3천의 대도시로 성장했다.

사실 광주는 백제시대 이래 1500여 년 영산강 문화권의 중추도시였다. 인적, 물적, 역사적, 문화적 자원은 어느 고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특색이 있다.

광주 역사 가운데 해방 이후는 전환기라 할 만큼 역동의 시간들이었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광주는 당대의 모순을 극복하면서 의향(義鄕), 문향(文鄕), 미향(味鄕)의 도시로 발돋움했다.

해방 이후 광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발간돼 화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노경수)이 펴낸 ‘해방 이후 광주 이야기’는 해방 이후 광주를 담고 있다.

노영기 조선대 교수를 비롯해 김원중 전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실장, 송재환 (주)바람아래 기획실장, 신주백 (전)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장, 위경혜 전남대 학술연구교수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노영기 교수는 “근현대, 특히 해방 이후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제된 답을 찾을 수는 없으나 적어도 해방 이후 광주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도였다”며 “도시로서의 광주는



1950년대 흰색으로 도색한 전남도청.

©오디세이 광주 120년

어느새 지역의 도시가 아닌 전 세계인에게 보통명사로 이해되는 곳이 되었다”고 전했다.

책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기에 이르는 시간, 광주 역사를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다. 특히 민족분단이라는 비극의 역사 속에서 광주가 걸어온 길, 독립유산 등을 상세히 수록했다.

1장 ‘해방 그리고 광주’에서는 항일독립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한 이들의 면면을 볼 수 있다. 이름 없는 의병, 일제 말기 무등회 사건으로 옥사한 학생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이들의 기록이다. 저자들은 “해방은 그러한 수많은 선열들의 헌신적인 투쟁의 산물”이었다고 강조한다.

2장 ‘전남도청과 금남로·종장로’는 권력에 항거했던, 지배에 저항했던 금남로 일원을 다뤘다. 3·15 부정선거 항의 ‘장승시위’를 비롯해 4월 19일 광주 시내 고등학교들의 대규모 시위, 5·16 쿠데타 이후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광주 학생들의 시위 등도 있다. 또한 80년 5월 18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과 시위 등도 기술돼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기 광주를 중심으로 한 극장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도 있다. 3장 ‘극장의 장소성’은 일제강점기 근대 신문물의 도입,

일본 이주자 도래와 함께 문을 연 극장을 조명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일제 지배 아래 광주극장의 규모는 문화적 저항의 의미’를 지녔다. 또한 일정 부분 일본 영화산업의 영향을 받았지만 ‘조선인 정서의 공감을 형성하고 공론을 집결하는 장소’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4장 ‘광주 신도심의 역사성과 장소성’은 상무대와 상무지구의 탄생에 초점을 맞췄다. 책에는 식민시기 광주비행장, 해방 후 미군 관할 당사가 기록돼 있다.

또한 50년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사용했던 광주 비행장, 1952년 미군 지휘 아래 설치된 상무대도 만난다. 마지막으로 1995년 장성군 사창면으로 상무대가 이전할 때까지 광주와 상무대의 관계도 대략적으로 담고 있다.

한편 14일에는 대구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에 책을 기증하는 기증식이 마련됐다. 독립운동 정신 뿌리를 조명하고 지역사회 역사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증식에는 노경수 이사장을 비롯해 노성태 재단 연구소장, 재단 관계자, 대구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이란 어둠 속에서 발견하는 빛”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김현주 작가 소설집 ‘메리골드’ 펴내

작가는 창작을 함으로써 그 존재를 증명한다. 소설가는 허구의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김현주 소설가는 오랫동안 소설로부터 떠나 있었다. 그에 따르면 “애중의 연인을 냉정하게 떠나 보내듯 돌아왔다”고 했다.

작가가 소설을 쓰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소재가 충분히 숙성되지 않아서, 건강이나 생활적인 이유로, 또는 소설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지 않아서 등 여러 원인이 있다.

김현주 소설가는 오랫동안 소설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멀리 떠나 있어도 한동안은 잘 살아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소설가는 소설로 돌아와야 그 존재 이유를 확인받는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김현주 소설가가 최근 두 번째 소설집 ‘메리골드’ (다인숲)를 펴냈다.

첫 창작집 ‘물속의 정원사’에 이어 20년 만에 나온 두 번째 작품집이다. 물론 이에 앞서 수년 전 장편소설 ‘붉은 모란 주머니’를 발간한 바 있다.

적잖은 시간 동안 소설(단편)을 쓰지 않은 것은 완결성에 대한 지나친 엄격함, 또는 소설에 대한 사유의 방향 등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른다.

이번 소설집은 모두 8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붉은, 행간’을 비롯해 표제작 ‘메리골드’, ‘떠도는 영혼의 노래’, ‘빅 블루’, ‘빛의 감옥’ 등이다.

김진수 평론가에 따르면 “부재와 상실의 체험은 김현주의 작품 세계를 견인하는 축”이라고 평한다. 표제작 ‘메리골드’의 여정은 “상실과 부재라는 존재론적 상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메리골드’는 ‘이별의 슬픔’이라는 꽃말을 담고 있다. 작품은 도자 갤러리를 운영하는 도예작가인 주인공 ‘나’와 행복한 꽃가게의 동갑내기 진서영



김현주 소설가

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히 ‘나’의 이해할 수 없는 발작은 서사를 견인하는 주요 모티브로 작용한다. ‘나’의 심연에 드리워진 불안증은 여러 심리적, 상황적 요인과 결부돼 있다.

김진수 평론가는 “내면적 심리 묘사 속에 등장하는 신경증의 징후들은 불안, 습관적인 불면, 환각, 긴장감, 탈이 자주 나는 몸, 역류성 위염, 토악질, 현기증, 가슴 통증, 실어증, 이명, 삶과 불화하는 불안하고도 기이한 감정, 정처 없는 삶의 외로움과 슬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환영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한다”고 언급한다.

한편 김현주 작가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는, 문학이란 이런 것. 그러나 어찌 소설을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며 결국 소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글쓰기의 절박함을 이야기한다.

김 작가는 장편 ‘붉은 모란 주머니’, 산문집 ‘네 번째 우러낸 찻발’ 등을 펴냈으며 광일문학상, 담양송순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구석구석 문화 배달

전남문화재단, 국비 10억원 확보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이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전국 공모 사업에서 2년 연속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국비와 시·군을 포함 총 15억8000만원에 달한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은 전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또는 해당 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사다. 지난해 해 영광, 무안, 곡성, 강진, 나주, 신안, 장성, 완도 등지에서 무료 공연을 통해 지역민을 만나 왔다.



‘문화요일 행사’ 발대식 장면.

〈전남문화재단 제공〉

올해는 ‘문화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문화요일’이라는 주제로 4월 경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말 외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했던 평일에도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주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사무직, 계절 노동자들을

위한 ‘월요 문화백신’을 비롯해 평일/당일치기 여행의 수요 증가를 반영한 ‘화요 문화정거장’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계절라 방식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전하는 ‘제페도 유랑단’도 꾸려진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오페라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광주시립오페라단, 출연자 오디션 다음달 9일까지 접수

광주시립오페라단이 2025년 정기공연 출연자 선별을 위해 오디션을 진행한다.

전국 단위로 공개 모집하는 이번 공모는 오는 2월 9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현장 실연심사는 2월 18~20일 오페라단 스튜디오에서 진행한다. 관련 학과(성악 등) 졸업생이나 유학 경험자, 오페라 작품에 경력이 있는 자라면 지원 가능.

먼저 5월 30~31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상연하는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은 아디나(소프라노), 네모리노(테너), 벨코레(바리톤) 역을 공모한다. 지방 배역 아리아 1곡과 자유 아리아 1곡을 준비하면 된다.

이어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7월 25~26일 소

극장)은 수잔나(소프라노), 피가로(바리톤·베이스) 등 7개 역을 선별한다.

끝으로 12월 12~13일 대극장에서 선보이는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은 로돌포(테너), 미미(소프라노) 등 주요 배역을 선별한다. 세계 공연에 중보 지원 가능하며 개인 반주자 동반을 원칙으로 한다.

최철 예술감독은 “내년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준비하는 세 공연에 출연할 주·조역을 공모로 선별할 계획이다”며 “지방 배역 아리아가 없는 경우 자유 아리아를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온라인 접수. /최류빈 기자 rub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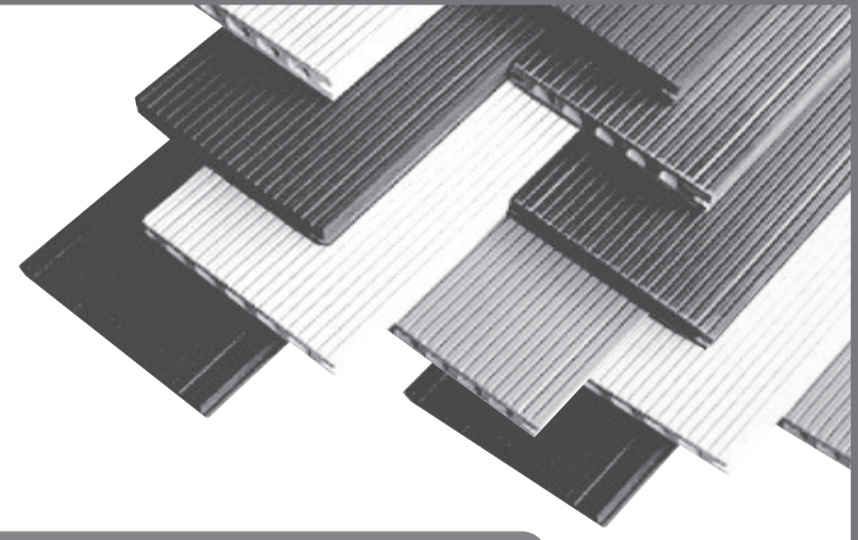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